



보도시점 2026. 5. 12.(화) 15:00 배포 2026. 5. 12.(화) 15:00

경인지방데이터청, 2026년 경인 통계·데이터 발전 협의회 개최

- 경인지역 지방정부, 연구원, 대학 등 통계·데이터 전문가 20여 명 참석
- 생활 인프라 개선 데이터 분석, 광주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등 논의

경인지방데이터청(청장 송영선)은 5월 12일(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연구원, 대학 등 지역 통계·데이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인 통계·데이터 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인 통계·데이터 발전 협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경인지역 통계·데이터 발전 방향과 지역통계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협의체로, 지역 정책 지원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위험도 분석, 외국인 밀집지역 행정·안전서비스 분석 등 지역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한 「2026년 생활인프라 개선 데이터 분석」 추진방향과 정책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다문화·외국인가구의 규모와 특성, 경제활동 등을 행정자료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광주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개발」 방향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국가데이터처 출범에 따른 지방정부 및 민간데이터 공유 및 활용, 지역 맞춤형 통계·데이터 분석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 「경인지방데이터청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인지방데이터청장은 “지역 통계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서 나아가 이를 연계·활용한 정책 지원 기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며, “지방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데이터 행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붙임) ‘2026년 경인 통계·데이터 발전 협의회’ 사진(별도 송부)

담당 부서	경인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근 (02-2110-7760)
		담당자	팀 장	김기훈 (02-2110-7768)



붙임

경인지방데이터청-경인 통계·데이터 발전 협의회 사진자료

